

# 安軸의 <關東別曲> 反芻

정 무 룡\*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텍스트의 시가사적 좌표  |
| II. 텍스트의 조명        | 1. 경기체가 장르의 최초 완성품 |
| 1. 텍스트 평설의 기반      | 2. 타 작품 및 갈래에의 반향  |
| 2. 텍스트의 현대적 정비와 평설 | IV. 결론             |
| 3. 텍스트의 구조         |                    |

## 【요 약】

지금껏 학계가 안축의 <관동별곡>을 오독했다는 소견 아래 필자는 저 텍스트의 창작시기와 그 배경을 논제로 한 편의 시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때의 소득을 검증하고자 이 글이 준비되었다. 성격상 본고는 앞글의 후속 작업이면서 마무리하는 관계에 놓인다.

<관동별곡>을 해석하고 평가할 준거를 설정해 보았다. 순찰 나온 사군에게 맞이하는 고을의 유학 선생이 자기 고장의 명소, 명물, 고적 등을 자랑하는 한편 그를 예찬하던 전통을 살려 근재가 강원도 존무사로 발행할 백문보를 위해 창작한 경기체가가 <관동별곡>이다. 존무사보다 권한이 증폭된 텍스트의 주동 인물 ‘병마영주’는 기실 백문보인데 상대편의 신분을 실제보다 높여 주던 문학적 관습을 따른 장치이며 그것은 나아가 텍스트 전체를 병마영주의 시각으로 음미하기를 요구한다.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병마영주가 순찰하는 도정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고을에서 맛볼 수 있는 경물의 목록과 그 때의 감흥을 표현한 시로 <관동별곡>은 읽혀야 한다.

첫째 연은 병마영주가 순찰할 지역과 그의 의장, 그리고 그가 경과 한 후의 미래상을 표현한, 전체의 도입 부분이다. 제2연은 안변의 비경과 그들을 歷訪하는 흥취를 묘사했고 제3연은 통천의 기암괴석을 형상화한 뒤 再臨하기를 소망했다. 제4연은 四仙의 자취가 완연한 고성 의 경물을, 제5연은 간성에 생성된 호수에서 뱃놀이하는 정취와 순채국 및 농어회의 별미를 노래했다. 제6연은 양양에서 풍류경연을 벌이는 신선들에게 환대 받는 병마영주와 이곳이 사철 놀만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제7연은 예의와 풍류로 유명한데다 주야로 볼거리가 있는 강릉을, 제8연은 삼척·울진·평해의 명소들을 찬미했다. 마지막 연은 피서지로 정선이 으뜸임을 인식시킨 후 전통과 역사를 자손만세까지 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는 9연 구성인데 도입 역할을 맡은 첫 연을 제외하면 병마사가 巡歷하는 일정을 좇아 나머지 연들이 접속되었다. 매 연은 일률적으로 6행이며 제 4행을 경계로 전후 분절된다. 두 분단은 차원이 상이한데 사물에 대한 사대부들의 도저한 인식 구조를 외현화한 것으로 보인다. 투식적 표현을 요구하는 제4·6행에서 파탄을 보인 곳은 감정의 분출로 이해되며 제 5행이 2음보로 일관한 점은 경기체가 원상의 보존이 아닌가 한다.

<한림별곡>이 구비전승의 세례를 듬뿍 받았는데 반해 <관동별곡>이 한 작가에 의해 일시에 완성된 점, 共樂의 추구, 투식적 표현의 정제 과정, 제5행의 2음보 실현, 동일 장르 및 여타 장르에의 반향 등으로 미루어 <한림별곡>이 차지했던 시가사적 위상은 <관동별곡>에 양도되어 마땅할 일이다.

## I. 서론

이 연구는 謹齋 安軸(1282~1348)의 <關東別曲>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후 그에 걸맞은 시가사적 위상을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필자는 기왕에 근재가 1345년 강원도 존무사로 발탁된 白文寶(1303~74)에게 강원도 여러 고을의 승경, 명물, 고적 등을 예비지식으로 전하고자 <관동별곡>을 창작했다는 관견을 편 적이 있다<sup>2)</sup>. 이 글은 그 후속편인 동시에 그 논지를 시험해 보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간 학계에서는 <관동별곡> 연구에 적잖은 열의를 쏟았으며 성과도 심대하다는 점 인정된다. 연구 관점을 전환하더라도 저들을 덮어야 소득을 낼 수 있다는 견지에서 소중한 노작들이다.<sup>3)</sup> 그러나 대체로 근재가 존무사로 봉직하는 동안 혹은 그 가까운 시기에 지방 향리 자체로 중앙 관직에 오른 이른바 신흥사대부들의 득의에 찬 기백과 사대부적 미의식을 노래했다는 비평 구도로 작품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관련 연구물들을 살펴본 이라면 쉽게 저런 주견을 논증하는데 군색하거나 혹은 서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음을 발견할 것인 바 필자는 텍스트의 창작 시기와 그 배경을 교체함으로써 그것들이 불식되리라 믿는다.

2)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韓國詩歌研究』제 19집 (韓國詩歌學會, 2005, 11).

3) 필자가 탐지, 입수하여 본고의 작성에 크게 도움을 받은 논문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金倉圭, 「謹齋 關東別曲 評釋考」, 『논문집』16(대구교대, 1980).

김동욱, 「<關東別曲>·<竹溪別曲>과 安軸의 歌文學」, 『泮橋語文研究』 창간호(泮橋語文研究會, 1988)

한창훈, 「謹齋 安軸(1282~1348)論」, 『우리말 연구』14(1995)

최용수, 「안축(安軸)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23호(1998, 12)

金相喆, 「안축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정서와 그 표출방식에 대하여」, 『한국학연구』10(1999)

그런 기대치에 도달하고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을 것이다. <관동별곡> 평설에 사용될 분석 틀을 확정한 후 현대역 및 평설을 그에 따라 시도할 것이며, 주제-내용을 外現한 구조를 뜯어보아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뤘는가 살필 것이다. 동일 장르에서 본 텍스트의 좌표 및 타 장르와의 교섭 양상을 통한 그 위치의 추적을 통해 <관동별곡>의 시가사적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문학사 서술에 기여할 바를 찾아낼 것이다. 순조롭게 이런 작업들이 완료되면 <관동별곡>에 대한 종래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된다.

## II. 텍스트의 조명

### 1. 텍스트 평설의 기반

<경상도팔영>이 <관동별곡>의 선행형태였다는 사실은 후자의 작가 시점이나 창작태도를 조명하는 열쇠가 된다. 按察 나온 사군을 영접하는 해당고를 유학자와 그 제자들을 가장해서 근재가 <경상도팔영>을 제작했다는 관점은 <관동별곡>의 감상과 이해에도 역시 유효할 것이다. 경상도 여덟 고을의 승경과 명물, 그리고 역사적 자취를 진술했다는 <경상도팔영>의 주제-내용이 관동지역을 노래할 적에도 모범으로 작용했으리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관동별곡> 읽기와 평가의 기초는 고장의 자량과 찬미였다.

문제는 저런 표현 태도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있다. 필자가 試論해 본 그 경위를 이해를 돕고자 간추려 본다.<sup>4)</sup> 이인복이 元에서 귀국할 적에 그곳 士夫들이 전별시를 기증했다. 근재는 ‘奇作’이라 평할 정도로 저들에 매료되었다. 지방을 순행할 적에 그곳의 名儒와 그 문

4)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앞 논문 참조.

도들이 헌정하는 기왕의 시가 경직되어 新意를 보여주지 못한 점을 개탄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원 사부들이 기증한 시 세계의 참신성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감탄했다 여긴다면 절반은 옳다. 나머지는 그와 더불어 교분을 나누었던 후배들과 공유한 사상에서 찾을 일이다. 곧 근세의 군신간의 의리정신, 益齋 李齊賢(1287~1367)의 國號 보전, 稼亭 李穀(1298~1351)의 고려 부녀자 징발 금지 등을 주창 혹은 상주한 행위들에는 애국홀민 정신이 관류한다. 향토정서를 고취시켜 애향심으로 연계하고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성과 자주성을 각성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원 사부들이 지은 기증시의 시풍은 일차적으로 고려 문단의 고루한 문풍을 쇠신시키는 점에서, 이차적으로는 소멸될 뻔한 정기와 역사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근재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무신들에게 핍박받던 신흥 사대부가 득의한 기백을 형상화했다는 시각보다는 향토 정서의 자극을 방편으로 자주성을 고취했다는 그것으로 <관동별곡>을 감상함이 작품의 진실에 더욱 근접해 갈 것이다.

텍스트의 주동 인물이 존무사와 병마사 중 누구냐 도 작품 평설에 적잖은 차이를 초래한다. 작중 인물은 분명 후자다. 그는 신분과 역할에서 存撫使와 변별된다. 옥 장식의 관대에 자줏빛 깃을 단 의상으로 임금에게 친히 斧鉞을 받아 관할 지역을 專制하는 상근직이 병마사다.<sup>5)</sup> 부연하자면 해당 지역의 민사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존무사는 시대에 따라 按撫使, 巡撫(察)使 등의 이칭을 가졌으나 그 소임은 백성들의 疾苦를 묻고 수령들의 考課를 매기는 일<sup>6)</sup>로 한

5) 兵馬使 成宗八年 置於東西北面 兵馬使一人 三品 玉帶紫襟 親授斧鉞 赴鎮 專制關外. 『고려사』권 77, 志卷 제31, 百官 2.

6) 忠肅王以安定道存撫使兼平壤府尹. 安撫使 顯宗三年置七十五道安撫使 九年 罷 睿宗二年 分遣諸道安撫使 問民疾苦察守令殿最 忠烈王二年 改安撫使爲巡撫使 忠肅王十七年 忠惠以平壤道存撫使 亦爲巡察使. 『고려사』권 77, 志卷 제31, 百官 2.

정되었다. 따라서 병마사에 비해 권한이 훨씬 축소되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둘을 혼효하여 존무사 소임을 수행한 근재를 작중 인물과 동일시하였다. 창작시기와 그 배경도 근재가 존무사로서의 활동시기에 근거를 두고 논단하였다. 작품의 실상과 해석 및 평가에 괴리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

백문보가 강원도 존무사로 임명된 1235년(고종 22)에는 병마사 제도가 폐지된 지 27년이나 지났다.<sup>7)</sup> 그런데도 굳이 그를 ‘병마영주’라 호칭한 까닭이 무엇인지 반문해야 한다. 추측컨대 상대편의 신분을 높여줌이 예의요 관행이었던 습속에 기인했으리라 본다. 현임은 존무사이거나 상급인 병마사라 불려줌으로써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에 걸맞게 우대한다는 의식을 보인 것이요 그렇게 함이 순행지역에 큰 혜택으로 보상되었던 관례를 답습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비약하면 위세가 드센 이른바 권문세족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신홍 사대부의 정치 포부를 재량대로 펼치라는 염원이 실렸을 수도 있다. 때문에 작가가 진술했거나 묘사한 텍스트의 주동인물은 병마사로 관철된다. 병마사로서의 처신, 행적, 사고를 표출했거나 묘사했다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근재는 병마사의 시각으로 <관동별곡>을 지었으며 그 점은 수용자더러 같은 입장을 취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관동별곡>은 강원도 존무사로 발행할 백문보에게 지역의 승경과 역사를 미리 알리고 그곳을 순행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감흥을 예감케 한 일종의 안내서로 규정지어 마땅하다. 심하게는 근재가 각 고을의 유학 선생으로 분장해서 자기 고장의 홍보물로 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작중현실은 현재 혹은 과거지만 근재가 예상해 본 장면이며 정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이전에 그가 존무사로 활동하면서 체험했던 바가 노래의 제재로 선정되었을 것이요,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

7) 병마사 제도는 1308년(충선왕 1)에 폐기되었다고 한다. 병마사 제도에 대한 개요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3(탐구당, 1993), 259~67면 참조.

고도 효율적인 구실을 할 수 있었으리 보아 무난할 듯하다.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 체험을 병마사의 신분 및 순찰 여정에 맞추어 재정비해 백문보에게 건넸다는 시각으로 <관동별곡>은 음미되어야 할 일이다.

## 2. 텍스트의 현대적 정비와 평설

- |   |  |
|---|--|
| <p>1. 海千重 山萬疊 關東別境<br/>         碧油幢 紅蓮幕 兵馬營主<br/>         玉帶傾盖 黑纒紅旗 鳴沙路<br/>         爲 巡察景 幾何如<br/>         朔方民物 慕義趨風<br/>         爲 王化中興景 幾何如<sup>8)</sup></p> | <p>바다는 천 구비, 산은 만 겹, 관동의<br/>         기별한 환경<br/>         기름먹인 푸른 기, 붉은 연꽃 그린 군<br/>         막, 병마영의 수장<br/>         옥장식의 관대, 비스듬한 일산, 검은<br/>         창, 붉은 기, 명사 길<br/>         아! 순찰하는 광경 어떠하겠습니까?<br/>         강원도 백성과 사물, 의리를 숭모하는<br/>         기풍 따르니<br/>         아! 왕도의 교화로 중흥하는 형세 어<br/>         떠하겠습니까?</p> |
|---|--|

병마사가 威儀를 갖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산수가 기이한 관동지방을 순찰하는 광경 및 그 예기되는 성과를 관찰자적 시점으로 포착했다.<sup>9)</sup> 제 4행을 경계로 시점이 전환되는데 앞이 원경→근경→대상인물

8) <歌辭>, 安軸, 『謹齋集』, 성대대동문화연구소 영인, 『高麗名賢集』(1986), 455~6면. 작품 앞의 숫자는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붙였다.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는 작품명, 서명, 쪽 수만 제시한다.

9) 김동욱은 작자와 시적 대상인 병마영주, 그리고 그 대상을 경물화하는 주제 곧 시적 화자를 동일인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상 병마영주는 ‘기품 있는’ 자아의 세계상이고 시적 화자와 병마영주는 각각 卽自와 對自로 분열된 자아의 모습이며 둘은 상호 보완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김동욱, 앞 논문. 86~8면. 그러나 자아분열과 같은 심리적 혹은 정신분석학적 비평 방법은 주로 오성과 감성이 일치하기 어려운 근(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하는

의 외형이란 초점화 방식을 취해 세계상을 제시했다면 뒤는 있어야 할 세계, 곧 지향세계의 표백이다. 앞부분은 碧·紅·玉·黑이란 색채를 동원해 행차의 위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자연의 바탕색과 대비시켜 대상 인물의 사명을 부각시켰다. 점강법 역시 여기에 순기능적이다. 뒷부분은 순찰 후 일어나는 변화상의 진술인데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기대치, 혹은 병마사가 지나간 뒤의 미래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가 관동지방을 직접 순찰하면 백성과 세계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의리를 숭상하는 기풍이 진작되리라는 진술자의 바람을 제1연은 담아내고 있다.<sup>10)</sup>

제1연은 이후 중첩되는 8개 연의 序詞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낸다. 관동과 삭방은 각각 강원도의 異名들로 순방할 고을들을 통괄한다. 펼쳐 보일 산수의 수려한 형세들을 ‘별경’으로 집약했다.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의장을 갖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땅을 울리는 보무로 순찰에 나선 주인공의 소개하는 일방 그가 일으킬 기대 등이 언급되었다. 이후 각 연들이 예의 화제들을 어떻게 포진하고 구체화시켰는지 구명하는 일이 독자의 몫이다.

---

시에서나 적절한지 몰라도 둘이 합일된 경지에서 살았던 중세적 삶을 표현한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때문에 매우 균색스러우며 억지라는 인상으로 남는다. 무리를 피하여 자화자찬한 노래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마치 허풍선이나 떠버리가 직접 자신의 외양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텍스트를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어느 쪽으로나 맞닥뜨릴 수 있는 곤경을 피하는 길은 작자(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 시적 화자가 병마영주를 관찰하는 시점을 택하면 해석이 매우 자연스러워진다. 둘째 연 이하에서도 주동인물은 병마영주지만 문맥적으로는 시적 화자가 그를 안내하고, 알려주며, 나아가 칭송하는 시점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합리적이면서 시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10) 김상철은 순찰에 임하는 각오의 표현으로 해석했는데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듯하여 불만스럽다. 김상철, 앞 논문, 124면.

2. 鶴城東 元帥臺 穿島國島  
 轉三山 移十洲 金鰲頂上  
 收紫霧 卷紅嵐 風恬浪靜  
 爲 登望滄溟景 幾何如  
 桂棹蘭舟 紅粉歌吹  
 爲 歷訪景 幾何如.

학성 동편의 원수대와 천도, 국도  
 세 산과 열 섬을 옮겨 놓았나 금자라  
 의 머리 위에.  
 자주 빛 안개 개이고 분홍색 놀 걷히  
 니 바람자고 물결 고요하네  
 아! 높은 곳에 올라 푸른 바다 조망  
 하는 광경 어떠하겠습니까?  
 계수나무 노, 목란 배에 단장한 기생  
 노래하고 피리부는 가운데  
 아! 차례로 탐방하는 광경 어떠하겠  
 습니까?

제2연은 학성 곧 안변<sup>11)</sup>의 승지 원수대<sup>12)</sup>와 천도<sup>13)</sup>, 국도<sup>14)</sup>를 감상하면서 촉발되는 감개를 노래했다. 역시 제4행을 경계로 전부가 조망을, 후부가 일일이 탐승하는 시각으로 구분된다. 즉 두 단락들은 경물

- 
- 11) 安邊은 다음과 같은 명칭들로 불렸다: 比列忽, 淺城, 朔庭, 登州, 朔方, 鶴城. 「安邊都護府」<郡名>, 『新增勝覽』49권, 五四면. 이하 민족문화추진회 발행,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1978)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순전히 필자의 편의를 좇아 이 방식으로 일관한다.
- 12) <元帥臺詩并序>. 『謹齋集』권 1, 437면. <관동별곡>에 소재로 채택된 명소나 명물, 나아가 역사적 자취 들은 대부분 『근재집』권1에서 그 형상, 내력들을 설명 내지 묘사해 두었다. 그들을 인용해 논거로 삼는 한편 독자들이 찾아 읽을 수고를 덜어줌이 도리이겠으나 지면관계로 약하고 이렇게 출처만 밝히기로 한다. 아래에서도 이 방식을 따른다. 『신증승람』은 『근재집』을 기본자료로 사용하였기에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자료를 더욱 보완한 만큼 연구에 소중하다. 이것 역시 사정상 출처만 밝혀 둔다. 「安邊都護府」<樓亭>, 『新增勝覽』49권, 五六~七면.
- 13) <穿島詩并序>, 『謹齋集』권1, 439면. 「歙谷縣」<山川>, 『新增勝覽』45권, 一八五면.
- 14) <國島詩并序>. 『근재집』권1, 436면. 「安邊都護府」<郡名>, 『新增勝覽』49권, 五五~六면.

의 제시+작중 인물의 행위로 분절되고 있다. 수직적 이미지와 수평적 이미지의 교호로 동적·입체적 형상화에 고심했음이 역력하다.

근재는 중국 문헌에 산견되는 神山<sup>15)</sup>과 10 洲<sup>16)</sup>의 지점을 여기에 고정시켰다. 신선들의 거처로 불사약이 있고, 금과 은으로 궁궐을 축조했으며 물결에 표류하지 않게 금자라가 떠받치고 있다는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sup>17)</sup> 또는 祖洲 등 열 곳을 원수대와 천도, 국도에 비겼다. 자줏빛 안개와 분홍색 노을로 덮여 농밀한 신비감을 조성하다 해가 뜨면 바람이 고요해 물결이 잔잔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고 찬미했다. 시선에 들어오는 경치의 황홀경에 몰입하는 일은 작은 만족에 불과하다. 잘 치장된 배에 가무에 능란한 미희들을 태우고 遊賞해 보아야 그 흥취는 완성된다.<sup>18)</sup>

15)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僊人居之 請得齊戒與童男童女求之.『史記』권 6, 秦始皇本紀 제 6. 自威宣燕昭 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 『史記』권 28, 封禪書 제1.

16) <十洲>. 道教稱大海中 神仙居住的十處 名山勝景 亦凡稱仙境.『海內十洲記』漢武帝 既聞王母說八方居海之中 有祖洲瀛洲玄洲炎洲長洲元洲流洲生洲鳳麟洲聚窟洲 有此十洲 乃人跡所稀絕處. 『漢語大詞典』1, 823면.

17) <湯問篇>. 殷湯問于夏革曰 古初有物乎 夏革(중략) 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其山高下 周旋三萬里 其頂乎處九千里 山之中間相距七萬里 以爲鄰居焉 其上台觀皆金玉 其上禽獸皆純縞 珠玕之水皆叢生 華實皆有滋味 食之皆不老不死 所居之人 皆仙聖之種 一日一夕 飛相往來者 不可數焉 而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潮波上下往還 不得暫峙焉 仙聖毒之 訴之于帝 帝恐流于四極 失群仙聖之居 乃命禹強使巨鯨十五 舉首而戴之 迭爲三番 六萬歲一交焉 五山始峙而不動 而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 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鯨 合負而趣歸其國 灼其骨而數焉 于是岱輿員嶠二山 流于北極 沈于大海 仙聖之播遷者巨億計 帝憑怒 侵滅龍伯之國使阨 侵小龍伯之民使短. 嚴北溟·嚴捷譯註,『列子譯註』(上海古籍出版社, 1986), 115~6면.

18) 김상철은 실현될 수 없는 개인적 욕망의 표현으로 해석했으나(앞 논문,

원수대와 천도, 국도의 명미한 풍광을 단순히 육화시키느라 3신산 혹은 10주에 견주었다고 보면 일면적이다. 중국 쪽 문헌에서는 막연하게 ‘東海中’이라 하여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어디서건 해변 주민들은 자기 고장이 그곳이라는 환상과 독단에 머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재는 안변에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좁게는 안변이, 넓게는 고려가 조물주로부터 ‘선택받음’이란 자긍심을 고취했고, 나아가 집단적 결속을 다지는 구실도 맡게 했다. 선정이란 이미지의 부여는 외형적인 미관의 제시와 함께 내면적인 자존심도 자극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 하겠다.

3. 叢石亭 金欄窟 奇巖怪石  
顛倒巖 四仙峯 蒼苔古碣  
  
我也足 石巖回 殊形異狀  
  
爲 四海天下無豆舍叱多  
玉簪珠履 三千徒客  
  
爲 又來悉何奴日是古.

총석정<sup>19)</sup>, 금란굴의 기괴로운 암석들  
거꾸로 선 바위, 사선봉, 푸른 이긴 낀  
옛 비석  
내 발로 암석들을 돌아보니 수이한  
형상들  
아! 온 천하에 둘도 없으리로다  
머리는 옥비녀, 신발은 진주로 장식한  
3천 衆徒 이끌고  
아! 또 오실 그 날이 언제일까.

제4행을 경계로 앞이 기괴한 바윗돌과 이긴가 덮인 비석의 형상에 탄상하는 내용이라면 뒤는 병마사가 계속 저것들을 완상하러 왕림해 주기를 소원한다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두 세계를 연결시켰다. 하나는 자연계요 나머지는 인간계로 구분이 완연하다.

---

126~7면) 텍스트에 한정시키는 한 그런 논거는 찾기 어렵다. 왕화중흥의 사명을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저런 유흥도 허용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次叢石亭詩韻>. 『근재집』권 1, 438면. 《通川郡》〈樓亭〉. 『신증승람』, 一八〇면.

장르 표지인 ‘~景 何如’를 감탄문과 의문문으로 대체시켰는데 왜 이런 변이를 사용했는가에는 몇 가지 답이 예상된다. ① 기능이나 의미상 둘은 호용됨으로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② 경기체가 갈래의 문법이 공고해지기 전이므로, ③ 진술 내용상 불가피했으므로, 등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모두가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갖겠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③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 환언하면 판박인 어투로서는 찬탄을 감당할 수 없을 정황이므로 변격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제 3연의 시적 대상이 된 경물에 대해서는 근재가 매우 실증적인 자세를 보인 점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의 판단은 총석정과 사선봉, 금란굴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기초한다.『四方山經地志』와『奇屏寶障』을 논거로 사선봉 주변의 기암괴석들이 천하에 둘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가 하면, 관음진신이 상주하는데 지성으로 축원하면 현신하고 또 청조가 날아온다는, 금란굴과 연관된 구전을 확인하고자 그는 현장을 찾았다. 거기서 그는 노랗게 빛나는 돌무더기가 불교에서 일컫는 금란가사와 같되 얼굴과 어깨가 없는 人體가 3자 높이 돌 벽에 완연하며, 그것을 연청색 돌무더기가 받치고 있는 형상에서 유래된 이야기임을 밝히고, 청조도 한갓 바다새의 와전임을 釋明했다.<sup>20)</sup> 그래서 그가 보고 느낀 실감을 형식적인 표현으로는 실상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고정형식을 거부한 것이다.<sup>21)</sup> 아울러 통친의 비범한 경물을 여실하게 병마사에게 알려줬다는 의도도 숨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객관과 사실을 존중하는 근재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전도암, 아야족, 석암회 들이 과연 고유명사였던가는 의심스럽다.『관동

20) <金欄窟詩并序>. 『근재집』권 1, 439~40면.

21) 김동욱은 작자 또는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부 인물들의 주관적 찬탄이 분출되다보니 변격을 부렸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근재가 직접 관찰한 점을 바탕으로 전승물의 진위를 따진 결과를 저렇게 直敍하고 있는데도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찬탄이라 추정함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김옥동, 앞 논문, 97면.

와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문헌을 뒤져도 방불한 명칭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암도 사선봉 약간 북쪽에 펼쳐진 변태무쌍한 돌 모습을 대유한 것으로 보겠고<sup>22)</sup> 제3행 전체를 그의 답사 행위와 그 감동으로 풀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sup>23)</sup> 이럴 때 제 4행과의 연결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지는 결과로서도 그렇다.

제5행의 옥잠주리는 장신구로 그 주체의 신분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환유다. 趙의 平原君(趙勝)이 楚의 春申君(黃歇) 식객들에게 무안을 당한 일이 바탕인데<sup>24)</sup>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관찰 대상인 병마사와 그의 수행자들의 장엄한 의장과 의상을 비유했다 하겠다.<sup>25)</sup> 순방하는 마을에는 德音과 혜택을 베풀므로 하층민들로서는 그 행차가 잦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마련이다.<sup>26)</sup> 끝 행은 백성들의 순박한 그런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22) <次叢石亭詩韻>. 『근재집』권 1, 438면.

23) ‘我也足’을 ‘어야차’로 번역한 양주동의 견해를 비판한 김동욱은 李穀의 <東遊記>를 논거로 ‘아야족’을 通足巖에, ‘石巖回’를 石池에 비의한 바 있으나 이 역시 근재의 엄밀한 실증적 태도로 볼 때 불만스럽다. 김동욱, 앞 논문, 90면. <동유기>의 본문은 이렇다. 窟東有石池 人言觀音浴處 又有巖石簇簇 方寸其大 多至數畝 皆欹側 人謂通足巖 盖觀音菩薩族踏而通 巖爲之欹側也. 『稼亭集』권 5, 『韓國文集叢刊』3, 131면.

24) 趙平原君使人於春申君 春申君舍之於上舍 趙使欲夸楚 爲玳瑁簪 刀劍室以珠玉飾之 請命春申君客 春申君客 三千餘人 其相客皆躡蹠履以見趙使 趙使大慙. 『史記』권 78, <春申君列傳>제 18.

25) 병마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소속 관원이 있었다. 그가 순행에 나설 적에는 그들도 수행했을 것이다. 知兵馬使一人亦三品 兵馬副使二人四品 兵馬判官三人五六品 兵馬錄事四人. 『고려사』권 77, 志卷 제31, 百官 2.

26) 백문보가 경상도 按部에 임하자 근재가 한편의 리을 지었다. 맞이하는 고을민들의 심정을 표현한 대목에서 이런 기대를 엿볼 수 있다. 適當披霧之期 遂被觀風之命 行色未過嶺外 歡情已逸民間 桑樞賤子 槐市寒生 春看洛水之清波 預知慶會 曉得商郊之膏雨.<白文寶按部 上謠八首 并序引>, 『근재집』권 2.

4. 三日浦 四仙亭 奇觀異迹  
彌勒堂 安祥渚 三十六峯  
夜深深 波瀾瀾 松梢片月

爲 古溫貌我隱伊西爲乎伊多  
述郎徒矣 六字丹書  
爲 萬古千秋 尙分明。

삼일포, 사선정, 기이한 외관과 형적들  
미륵당, 안상의 모래톱, 36개 산봉  
깊고 깊은 밤, 넘실대는 물결, 소나무  
끝의 조각달

아! 고은 양자가 나와 비슷하오이다  
술랑 등의 여섯 자 붉은 글씨  
아! 천년 만년이 지난 지금도 분명합  
니다.

자연과 인공이 어울려 미려함을 조성하는 자연을 관조하는 전단과 과거를 회상하는 후단을 제 4행이 가로지르는 구조는 기왕의 연들과 일치한다. 그런가 하면 제4행은 일찍 지적되었듯<sup>27)</sup> <정과정>의 ‘난 이 슷호요이다’와 유사함으로 인해 당대 인기를 누린 관용적 표현구문이었음도 알 수 있다.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이기에 片月이며 그 ‘고은 양자’는 ‘나’와 유비관계에 있다. 곳곳한 기백의 소나무는 관찰대상의 준걸스런 풍모요 거기에 걸린 형형한 달은 그의 고매한 정신을 표상한다. 준수한 외모와 淸粹한 품성의 소유자 병마사가 주변의 경물과 융일한 상태에 들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관찰자가 당시 유행하는 구문을 빌어 표현했다 할 것이다.

후단은 걸으로는 긴 세월의 풍우에도 마멸되지 않은 돌 비의 항구성을 찬미하는 뜻으로 다가오지만 도식적인 틀을 거부했다는 면에서 합의가 예사롭지 않다. 네 화랑들이 3일간이나 留連할 정도로 이곳의 산수가 기이하다는 점과 붉은 빛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충성스런 자취들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오히려 찬연하다는 점을 연상시킴과 함께 현재 순행중인 병마사 당신도 술랑의 후신인 만큼<sup>28)</sup> 저들에 버금가는 공적

27) 양주동, 『麗謠箋注』(을유문화사, 1985), 207면.

28) 근재는 경포에 정자를 새로 세운 朴淑을 영랑의 환생으로 추론한 적이 있다(越泰定丙寅 今知樞部學士朴公淑 自關東杖節而還 謂余曰 臨瀛鏡浦臺 羅

을 남겨 달라는 소회가 내장되었다 로 읽힌다. 석비의 생생력과 역사의 감계성을 빌어 병마사를 칭송함과 동시에 그의 역사의식을 촉발시킨 의도인 셈이다. 여기에는 물론 환관 등 권문세족들의 농단과 원의 무자비한 획일주의로 왕조가 당면한 참담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간접하고 있다.

- |                 |                                   |
|-----------------|-----------------------------------|
| 5.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 선유담과 영랑호가 신비하게 청정한 골짜기에.          |
| 綠荷洲 靑瑤嶂 風煙十里    | 푸른 연잎 덮은 섬, 푸른 구슬 같은 산, 십리 뻗은 물안개 |
| 香冉冉 翠霏霏 琉璃水面    | 향기는 모락모락, 자욱한 초록빛, 유리 같은 수면       |
| 爲 泛舟景 幾何如       | 아! 뱃놀이 모습 어떠하겠습니까?                |
| 蓴羹鱸膾 銀絲雪縷       | 순채국 농어회, 은빛 순채 줄기, 흰 실 날처럼 쓴 농어회  |
| 爲 羊酪豈勿參爲里古      | 아! 어찌 양젖만 못하리.                    |

계곡에 형성된 못이나 호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롭다. 특히 강원도처럼 고산 지역에 선유놀음이 가능한 규모의 담수지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혜다. 게다가 선유담과 영랑호는 찾는 이들에게 독특한 주변 경관과 희귀한 인물전설을 선사한다.<sup>29)</sup> 여기에 뱃놀이를 곁들이면 동양화의 제재로서 완벽에 가까워진다. 동해와 그것을 끼고 형성된 자연의 아름다움이 분명 탄상적이기는 하나 매양 신선함과 경이감에 젖을 수는 없다. 탐승이 계속되어 유사한 경관에 싫증이 날 즈음 산협에

---

代永郎仙人所遊也...昔永郎遊是臺也 必有所樂焉 今朴公所樂者 其得永郎之心歟...此安知非永郎復生于今耶. 『근재집』권 1, 449~50면). 비문에는 永郎徒南石行으로 인각되었는데 텍스트에서는 述郎徒로 표기되었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하여 추론해 본 것이다.

29) 【杆城郡 山川】『신증승람』권 45, 앞 책, 一七三면.

서 대면한 호수는 이국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1~4행은 선유담과 영랑호란 산골의 독특한 호수들이 주변 경치와 어울려 빚어낸 비경 및 거기에 뱃놀이하는 낭만을 노래했다.

제5~6행은 미각 이미지에 무게를 두어 이전의 시각 이미지로 묘사한 점과 대조시킨다. 시각은 개인주의, 독자성을 지향한다. 여기에 비해 미각은 사회성, 결속성을 매개한다. 교분을 맺게 하고 강화시키며 갈등을 풀고 화해시키는 데 음식은 촉매제다. 사회 활동이나 의례에 음식은 불가결하다. 미각의 환기는 단순히 감각적 쾌감의 재생을 넘어 사회의식으로 독자를 유인한다.<sup>30)</sup>

양젓과 순채국 및 농어회는 특정 고장의 토속 음식인데 典故로 문인들에게는 익숙했다. 유아 때에 맛들인 음식이 원형으로 작용하는 경험칙에 따른다면 성장한 고장에서 전승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판단은 필연적이다. 陸機의 양젓에 王武子가 蓴羹을 대립시킨 사실은 이런 면의 범례가 된다.<sup>31)</sup> 특히 순채국과 농어회는 명예보다는 情志의 성취를 소중히 여긴 장한의 고사<sup>32)</sup>와 연결되면서 귀향하는 정객들에게 회자되었다. 杆城 지방에는 양젓에 맞먹는 두 식품이 유명하니 오시거든 그 특미를 시식해 보시오 라는 자랑 겸 당부가 제 5~6행의 주지로 떠오른다.

30) 미감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다이앤 애키먼 지음,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학』(작가정신, 2004), 189~93면.

31) 羊酪: 用羊乳制成的一種食品 常借指鄉土特產的美味. 南朝 宋義慶『世說新言語』陸機詣王武子 武子前置數斛羊酪 指以是陸曰 卿江東 何以敵此 陸云有千里蓴羹 但未下鹽豉耳.『漢語大詞典』9

32) <張翰>. 張翰 字季鷹 吳郡 吳人也 父儼 吳大鴻臚 翰有清才 善屬文 而縱任不拘 是人號爲江東步兵. …齊王冏辟爲大司馬東曹掾 冏時執權 翰謂同郡顧榮曰 天下紛紛 禍難未已 夫有四海之名者 求退良難 吾本山林間人 無望於時 子善以明防前 以智慮後 榮執其手 愴然曰 吾亦與子採南山薇 飲三江水耳 翰因見秋風起 乃思吳中菰菜蓴羹鱸魚膾 曰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 遂命駕而歸.『晉書』권 92, 列傳 第 62.

그러나 음식이 유대감이나 사회성을 증진시킨다는 기능을 고려한다면 저런 평면적 해석으로는 미진하다. 양젓은 전통 문화를 파괴 내지 해체시키는 전위대다. 유목민들에게 양젓은 기본적인 식단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대 몽고 음식의 표본이다. 정치적 우위를 무기로 자랑스럽게 양젓 문화를 확산 주입시켜 복속민들의 입맛을 변질시키고 그를 통해 세뇌와 동화를 도모할 것은 元의 計巧다. 반면 순채국과 농어회는 전통 음식을, 그것도 지방 특산을 대변한다. 간성 지방의 토속 음식을 고리로 고려의 자주성, 전통성을 보전하자는 복선을 놓았다 하겠다. 양젓이 육지에서 생산되는데 반해 순채국과 농어회가 강해 산물이란 대비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도도하게 밀려오는 원 문화의 유입에 함몰하지 않고 고유 문화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체의식이 잠재했으며 내방하는 병마사에게도 그런 심정을 은연중 전하겠다는 근재의 창작의식이 작용했을 듯하다.

- |  |   |
|--|---|
| <p>6.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br/>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p> <p>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p> <p>爲 爭弄珠絃景 幾何如</p> <p>高陽酒徒 習家池館</p> <p>爲 四節遊伊沙伊多</p> | <p>설악산 동쪽, 낙산 서쪽, 양양의 풍경<br/>강선정, 상운정이 각각 남북에서 마주<br/>보는데</p> <p>자주빛 봉새, 분홍 난새 탄 곱고 산뜻<br/>한 신선들</p> <p>아! 진주 빛 영롱한 줄 경쟁하듯 고르<br/>는 광경 어떠하겠습니까?</p> <p>고양의 술꾼들이 습가지 술집에서 그<br/>랬듯</p> <p>아! 우리도 사철 놀아 보자고요.</p> |
|--|---|

제4행 이전이 仙界라면 뒤는 지상계로서 맞선다. 설악산과 낙산이 동서로, 강선정과 상운정이 남북에 포진한 양양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극치를 이룬 곳이므로 봉새나 난새를 타고 온 선인들이 줄풍류 경연을 벌인다.<sup>33)</sup> 현악의 幽玄한 청각 이미지와 자주나 분홍의 간색 시

33) 악기 연주에 능숙한 신선이 있는가 하면 학, 봉황, 난새를 타고 왕래하는

각 이미지들이 환상세계 구성에 상보적이다. 청각이 상상 내지 환상에 가교가 됨은 예증할 필요가 없다. 시각이나 미각 등 여타 감각이 지성에 봉사한다면 청각은 감성을 돕는다. 양양의 자연과 조경이 매우 조화로움을 신선들이 찾아와 仙樂을 즐기는 것으로 방증한 수법이다. 병마사 당신은 저들과 동류로 종유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세계로 초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잠재되었다. 봉황이나 난새를 타고 줄풍류를 경연하며 술에 취해 사철 놀자는 모티브들은 ‘질박하면서도 호기로운’<sup>34)</sup> 정경으로 떠오른다. 천박한 분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는 기생들과 어울려 가무음주로 말초감각을 만족시키는 유희과는 격이 다르다. 외래의 부박한 놀이문화를 추방하고 우리 본래의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염원이 저변에 흐르는 점도 감득된다.

뒤 2행은 고양 술꾼들이 습가지<sup>35)</sup>를 술집으로 개조해 자주 모여 호음했듯이 병마사와 그 일행들도 양양에서 醉樂하여 무방하다는 의미로

---

신선도 있다. 琴高, 寇先, 稷丘君, 毛女, 子主는 거문고를 잘 댄고 생황에 능했던 王子喬는 학을 타고 다녔다. 통소를 잘 불던 蕭史는 봉황을 거느렸고 偃佺은 봉새와 난새가 날 듯이 걸었다고 한다. 양양을 찾아온 신선들도 저들과 동류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든 신선들의 略傳은 劉向지음, 김장환 옮김, 『列仙傳』(예문서원, 1996), 여기저기 인용.

34) 한창훈, 『謹齋 安軸論』, 앞 논문, 209면.

35) 고양주도와 습가지의 개략적인 유래는 이렇다. 고양의 본명은 襄陽(중국 호북성 소재), 이 고장 호족이었던 습씨들은 연못이 딸린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했는데 漢나라 시중을 역임한 翳郁이 현산에 조성한 정원에는 고기를 길러 유명했다. 썸시절 양양 수령이었던 山簡은 『사기』〈酈食其傳〉에서 ‘술을 즐기며 세속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인물’이란 의미의 ‘고양주도’를 참조하여 양양을 고양으로 개명하고는 養魚池 주위에서 술에 취한 세월을 보냈다. ‘습가지관’은 이런 내력을 간략화한 어구다. 결국 제5행은 중국 양양의 고사를 지명이 동일함을 근거로 전이시킨 기법으로서 음주취락처로 양양이 최고라는 당대 혹은 화자의 평가를 표현했다 할 것이다. 출처는 『史記·酈生陸價列傳』 및 『晉書·山簡傳』

수용된다. 취흥을 돋우는데 양양 이상인 승지가 없다는 의미가 일차적 이요 중국의 습가지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곳이 양양이라는 의미로도 전용된다. 양양의 절경에 대한 찬송이 국토애로 확장될 여지는 상존한다.

유람객들이 사철 절승처를 바뀌가며 유락하는 풍습은 신라 이래의 전통이다.<sup>36)</sup> 계절이 빛는 아름다움이 가장 빼어난 곳을 찾아 즐거이써 그 계절감을 깊이 완상하자는 취지였으리라. 경비와 노고를 희생해서라도 탐미욕구를 달성하려는 문화주의적 민족성의 일단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양양은 네 계절의 아름다움이 여느 곳보다 완전하면서도 뚜렷한 곳이므로 외지를 동경할 필요가 없다. 화자가 병마사더러 연중 여기를 찾으라고 권유한 이유다.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追懷하면서 양양의 아름다움을 중첩시킨 표현이라 하겠다.

- |                   |                                 |
|-------------------|---------------------------------|
| 7.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 | 삼한 적부터 의례, 천고에 전승되는 풍류, 강릉 옛 마을 |
| 鏡浦臺 寒松亭 明月淸風      | 경포대, 한송정, 맑은 달과 시원한 바람          |
| 海棠路 菡萏池 春秋佳節      | 해당화 핀 길, 연꽃을 가꾼 연못, 봄 가을 좋은 계절  |
| 爲 遊賞景 何如爲尼伊古      | 아! 이들을 둘러보며 즐기는 정경 어떠하겠습니까?     |
| 燈明樓上 五更鍾後         | 등명사 다락에서 5경 종 친 뒤               |
| 爲 日出景 幾何如.        | 아! 해뜨는 광경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전후 단락은 계기적으로 배열되었다. 전단에서는 낮의 체험을, 후단에서는 야경과 일출을 노래했다. 결국 강릉은 주야로 탐승객들을 매혹시킬 만큼 소재들이 다채롭고도 풍부함을 자랑한다.

36) <四節遊宅>, 『三國遺事』권1. 春東野宅 夏谷良宅 秋仇知宅 冬加伊宅.

첫 행의 앞 두 음보는 변격을 취했다. 3음절의 음보가 역동적인 느낌을, 4음절 음보가 완만하면서도 중후한 정감에 부합됨을 터득한 의도적 이탈로 해석된다. 역사와 전통을 회고하는 정황이기에 4음절 기저의 음보를 택한 것이다.<sup>37)</sup> 강릉의 민속이 의례와 학문을 숭상하며 풍류를 사랑한다는 평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득히 濊貊 시절부터<sup>38)</sup> 조선의 黃喜<sup>39)</sup>, 洪貴達<sup>40)</sup>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鄒魯地로 칭송되었다. 때문에 화자의 저런 표현이 결코 遁辭일 수는 없다. 둘째 행은 유형적 전승물을 미화했다. 두 樓亭은 자연 배경과 썩 조화로와 구경꾼들을 유인하지만<sup>41)</sup> 四仙의 유물들이 잔존하므로 유상객들의 호기심을 더욱 조장한다. 한송정에서 발견되는茶具들은 술량<sup>42)</sup>을 비롯한 사선<sup>43)</sup>들의 숨결이 묻어나며 경포대의 돌확<sup>44)</sup> 역시 동일하게 풀이된다.

37) 제4행은 幾가 누락된 반면 爲尼伊古가 첨가된 면에서 일탈이다. 국어로는 ‘기’로 표기되는 幾는 대명사 형태를 취하나 ‘-景’으로 집약된 내용을 반복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어지는 술어의 주어가 된다. 뒷 8연에서도 동일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刻手들의 단순한 실수로 선불리 진단할 수 없어 과제로 미뤄둔다. ‘何如’ 대신 何如爲尼伊古란 표기는 향유현장에서의 실현태를 음차한 모습인데 첫 행의 늘어난 음절과 균형을 상정한 의도가 내포되지 않았을까 한다.

38) <風俗>. 後漢書 其人性愚慤 少嗜慾 不請丐…自齠髻 挾策從師 絃誦之聲 滿於里閭 慢者衆共黜罰之…其俗每遇佳節 相邀群飲 不廢將迎 然不力農 資產不贍…『신증승람』권44, 一五0면.

39) <風俗>. 黃喜詩 禮義相先千古地 何煩行怪說神仙. 『신증승람』권44, 一五一면.

40) <學校>. 洪貴達重修記…惟江陵僻在嶺海間 其人服禮義誦詩書 實吾東之鄒與魯. 『신증승람』권44, 一五六면.

41) <題詠>. 李仁復은 ‘경포와 송정이 나의 주거를 용납한다면 반드시 봉래도에서 신선을 다시 찾지 않으리(鏡浦松亭容我住 不須蓬島更求仙).’라 하여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다. 『신증승람』권44, 一六0면.

42) <樓亭·寒松亭>. 『신증승람』권44, 一五四면.

43) <樓亭·寒松亭>. 安軸詩四仙曾會此 客似孟嘗門 珠履雲無迹 蒼官火不存….

강릉을 대표하면서 신비로운 역사를 간직한 공간들을 노랫말에 배분했다고 요약된다. 제 3행은 자연물로 시선을 돌린다. 봄철의 해당화가 난만한 길, 가을철의 연꽃이 盛開한 연못은 강릉이 내놓을 만한 볼거리들이다. 둘로써도 강릉을 찾은 노고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다는 화자의 자신감이 함의되었다. 이처럼 화자는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 등 상하좌우로 관심을 돌리면서 강릉을 소개하고 미화하기에 분방하다. 자연경관으로부터 사변적 탐색에 이르기까지 강릉은 독특하면서도 다채로운 遊賞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제1~4행은 읽혀진다. 강릉은 낮의 구경만으로 탕진될 곳이 아니다. 야경, 그것도 우뚝 솟은 燈明寺의 이층 層臺<sup>45)</sup>에서 조망하는 밤 풍경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일품이다. 그것에 도취하는 맛도 좋거니와 내일 새벽의 해돋이에 대한 설렘도 밤을 지새우게 한다. 강릉의 해돋이 장관은 일찍부터 시인묵객들에게 완상 거리였다.<sup>46)</sup> 선인들이 경험했던 그 감흥이나 정취를 지금의 병마사나 화자인들 어찌 간과할 수 있겠느냐는, 당대인들의 심미의식을 격동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7연은 강릉은 주야로 탐방하고 유람할 수 있는 소재들로 가득한 곳임을 암시했다 할 것이다.

8.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  
翠雲樓 越松亭 十里青松

오십천, 죽서루, 서촌의 팔경  
취운루, 월송정, 십리 뺨은 청송들

---

『신증승람』권44, 一五四면.

44) <樓亭·鏡浦臺>. 『신증승람』권44, 一五四면.

45) <佛宇·燈明寺>의 金克己 詩에 ‘金繩道繞碧蓮峯 複閣層臺迥倚空’, 『신증승람』권 44, 一五七면 라는 표현이 있어 이렇게 추측된다.

46) <佛宇·燈明寺>. 在府東三十里 李穀東遊記 至燈明寺觀日出. <樓亭·鏡浦臺>. 『신증승람』권44, 一五四면. <題詠> 金克己詩 沙頭行數里 谷口到孤城 岸外邊雲暗 鷄前曉日明. 李穡詩 地近扶桑天易曉 山連長白夏有寒. 『신증승람』권44, 一六〇면.

吹玉簫 弄瑤琴 清歌緩舞

爲 迎送佳賓景 何如

望槎亭上 滄波萬里

爲 鷗伊鳥작((++樵))甲豆斜羅.

옥피리 불고 옥 거문고 뜯으며 청아  
한 노래와 느릿한 춤

아! 귀한 손님 맞고 보내는 광경 어  
떠하겠습니까?

망사정 가 만리나 굽실대는 푸른 파  
도

아! 갈매기 새도 자갸스렵도다.

삼척과, 울진, 그리고 평해 세 고장의 명소와 그 미감을 노래한 면이 이외다. 앞의 연들은 한 행정 단위 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그런데 제 8연에 들어 세 지역을 묶는 연유는 각처가 한 연을 감당할 만한 자량거리가 빈약했다는 데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만일 자유스럽게 연을 신축할 수 있었다면 선택된 지역의 관광품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한 연에 한 지역을 배당한다는 직전까지의 원칙이 고수되었으리라 본다. 9연으로 완결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따른 편법이라 봄이 온건할 듯하다.

첫 행에는 삼척 소재 절승처를 나열했다. 오십천은 먼 원류로<sup>47)</sup>, 죽서루는 건립한 지점의 비상한 배경으로<sup>48)</sup>, 서촌 팔경은 고래로 허다한 문인들이 제재로 삼은 관록으로<sup>49)</sup> 유명해진 경물들이다. 병마사는 물론 문사로 자처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탐방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화자의 소신이 들어 있다.

울진 취운루는 근재 자신의 명민한 감식력을 시험해 본 곳인데<sup>50)</sup>

47) <山川·五十川>. 『신증승람』권 44, 一六一面.

48) <樓亭·竹西樓>. 『신증승람』권44, 一六二面.

49) <題詠·八景>. 서촌 팔경은 竹藏古寺, 巖控清潭, 依山村舍, 臥水木橋, 牛背牧童, 壟頭饁婦, 臨流數魚, 隔牆呼僧인데 이 중 臥水木橋는 李達衷, 安軸, 李穀, 辛葦, 金壽寧의 5명이 시화할 정도로 매력적인 제재였다. 『신증승람』권 44, 一六四~五面.

평해의 월송정과 함께 장대하면서도 울밀한 송림으로 장관을 이룬다. 월송정에는 술량 등 신라 선인들이 쉬었다 간 곳이란 전설 때문에 정취를 더해준다.<sup>51)</sup> 우람한 소나무들이 넓은 지역에 밀집한 모습은 清爽하면서도 靈異한 정서를 유발한다. 그 개체들은 활달한 기품을 표백하지만 그 군락은 탈속한 幽玄感에 젖게 한다.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인물들이 밀려난 은둔처가 아니라 고답적인 가치 실현에 삶의 지향점을 둔 이들이 평생을 의존하고 싶은 이상경으로 매김되는 곳이다. 삶의 터를 이런 곳으로 택한 인물들이 상호 내왕하며 쌓아 가는 교분도 영리적 효용가치보다는 인격적 성숙을 갈망한다. 순일하고도 진정한 만남이며 그로써 수수되는 내적 교류는 인성을 고양시키는 동력이다. 때문에 그들의 유락에 동원되는 풍물이나 기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준거로 재단하기 힘들다. 단지 말단감각들을 자극해 부박한 쾌감을 증진시키는 향락성보다는 심금과 영혼의 공명을 의도하므로 예능과 그 악기들은 고상해야 한다. 이처럼 개결하고 청아한 풍류 마당에 참여한 병마사는 ‘가빈’일 부박에 없다. 병마사를 환영·환송하는 현장의 격조 높은 흥치를 체감하는 듯하다.<sup>52)</sup>

제1~4행이 지상에서 경험된 淸遊라면 제5~6행은 그것을 천상에까지 연장시키는 의지로 읽힌다. 울진의 고명이 仙槎였다거나 그곳의 ‘망사정’이란 정자명은 뗏목으로 은하수에 올라 직녀를 만났다는 博望侯 張騫의 전설<sup>53)</sup>을 환기시키기에 족하다. 망사정을 제재로 근재가 읊

50) <翠雲亭記>. 『謹齋集』卷 1, 四五0~一면.

51) <樓亭·越松亭>. 在郡東七里 蒼松萬株 白沙如雪 松間螻蟻不行 禽鳥不棲 諺傳 新羅仙人述郎等 遊憩于此. 『신증승람』권 45, 一七0面.

52) 최용수는 佳賓을 화자로 보아야 문맥상 설득력이 있다고 했는데(앞 논문, 275면) 그렇다면 화자=시적 대상이 되어 자기칭찬으로 귀납된다. 수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빈을 병마영주 즉 백문보로, 영송하는 주체를 여기 거주하는 인물들로, 화자를 작가로 배분하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53) <仙槎>: 亦作僊槎 神話中 能來往于海上和天下之間的竹木筏 典出晉張華

은 시<sup>54</sup>)와 서거정이 평해 八詠의 하나로 쓴 망사정<sup>55</sup>)을 참고하면 해당 정자 주변의 넘실대는 파도를 은하수에 비유했던 문학적 관습의 전승을 엿볼 수 있다. 환상으로 동경해온 은하수를 망사정 주변에서 대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극진한 향토애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끝 행의 “착(++樵)甲豆斜羅”가 향찰 식 표기임은 본고도 인정하나 현대적 풀이에서는 기존의 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어의 ‘자갑스럽다’의 음차적 표기로 ‘갈매기야 너 진정 내 마음 꿰었으니 내 벗이 되기에 충분하구나.’라는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sup>56)</sup> 따

『博物志』卷 3. 舊說云 天河與海通 近世有人 居海渚者 年年八月 有浮槎去來不失期 人有奇志 立飛閣於查上 多齎糧 乘槎而居 十餘日中 猶觀星月日辰 自後芒芒忽忽 亦不覺晝夜 去十餘日 奄至一處 有城郭狀 屋舍甚嚴 遙望宮中 多織婦 見一丈夫 牽牛渚次飲之 牽牛人 乃驚問曰 何由至此 此人見說來意 竝問此是何處 答曰 君還至蜀郡訪嚴君平 則知之 竟不上岸 因還如期 後至蜀 問君平 曰 某年月日 有客星犯牽牛宿 計年月 正是此人到天河時也.『漢語大詞典』권 1, 1148면.

<支機石>: 傳說爲天上織女用以支撐織布機的石頭.『太平御覽』卷八 引南朝宋劉義慶『雜林』: 昔有一人尋河源 見婦人浣紗 而問之 曰 此天河也 乃與一石而歸 問嚴君平云 此支機石也 一說 其人爲漢代張騫 謂騫奉命 尋找河源 乘槎經月亮至天河 在月亮見一女織 又見一丈夫牽牛飲河 織女取支機石與騫.『漢語大詞典』권 4, 1384면.

54) <平海·樓亭>. 金碧浮空映水陰 登臨一望洒塵襟…八月仙槎通上漢 百年魚店隔前林.『신증승람』권45, 一七一면.

55) <平海·題詠>. 望槎亭上神仙家 望槎亭下魚龍波…一自博望尋靈源 至今來往皆神仙. 앞 책, 一七二면.

56) 양주동이 ‘착(++樵)’을 ‘藩’으로 오독한 데서 문제가 발단된 것 같다(양주동 앞 책, 416면. 단 양주동이 읽은 텍스트가 별개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가 ‘반갑두새라’로 옮기자 김창규는 ‘반갑다고 하는구료’(김창규 앞 논문, 51면)로 현대역하여 양주동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반갑다’고 말 건네는 주체를 바꾸었다. 필자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명백히 ‘착(++樵)’

라서 뒷부분은 울진의 망사정은 천계에 오른 듯한 느낌을 자아낼 정도로 환상적이며 나아가 거기에서는 몰아일체라는, 유가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화자의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9. 江十里 壁千層 屏圍鏡澈	십리 펼친 강물, 천여 층의 절벽, 병풍 두른 듯 거울이 맑은 듯
倚風巖 臨水穴 飛龍頂上	풍암에 기대고 수혈에 가보고 비룡암 꼭대기에 오른다
傾綠蟻 聳水峯 六月清風	미주 기울이니 높다란 얼음 봉우리에 서 불어와 6월이나 청풍
爲 避暑景 幾何如	아! 더위 피하는 광경 어떠하겠습니까?
朱陳家世 武陵風物	주진촌처럼 가문은 대를 잇고 무릉과 같은 풍물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	아! 자손들에게 전승되는 광경 어떠하 겠습니까?

제4행이 감탄한 피서의 정경은 그 앞서서 선정된 제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쇠락함을 혼용한 데서 연유한다. 첫 3개의 시행은 물과 산, 그리고 통합의 이미지들을 바꾸며 진행되는 유형을 보이는데 더위는 물

---

으로 模寫되었지 ‘藩’은 아니다. ‘작(++樵)’은 ‘초(++樵)’와 호환되며 의미는 약초 附子라고 字典은 알려준다. 이를 음독해서 아랫부분과 연결하면 ‘작갑두세라’로 해석된다.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어 어휘는 안 보이니 대신 ‘자갑스럽다’란 유사 표제어가 사전에 등재되고 그것은 ①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늙은이의 흉내를 내어 깜찍하다. 어린것이 너무 성숙한 짓을 하여 깜찍스럽다. ②→잡상스럽다 라고 풀이해 놓았다(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75). 두 어휘 사이의 음운적 상관성을 밝히는 문제는 미뤄두고 필자는 직관에 의해 해당 낱말을 ‘자갑두세라’의 향찰식 표기로 인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①의 뜻을 수용하여 이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새겨보았다.

가나 산중에서 피할 수 있다는 전통적 관념을 정선의 승지들로 실감나게 표현한 예가 되어 준다. 거울처럼 맑은 강물이 마치 잘 마진한 비단을 펼쳐놓은 듯 시원하게 흐르고, 높낮이를 달리하며 고을을 에운 돌 절벽들은 그 자체만으로 냉기를 쏘아내는 듯하다. 대음산 암석들 틈에 끼어 있는 풍암(일명 풍혈)과 수혈은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곳이다. 鄭樞의 음영<sup>57)</sup>은 이런 면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켰다. ‘飛龍’의 실체나 위치는 모호하다. 대음강 하류에 龍岩淵이 있다는 정보<sup>58)</sup>로 미루어 이곳의 이칭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sup>59)</sup> 한더위에 綠蟻 즉 醇酒를 마신다는 것은 역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열치열, 곧 열기가 높을수록 자연이 주는 清爽感에 더 예민해지는 원리를 차용했다 하겠지만 이면적으로는 내적 煩熱은 술로 진정시키고 감각적 더위는 산수로 식히는 중의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도도하게 취한 화자에게 계절은 정녕 6월의 염천인데도 이곳은 마치 높은 얼음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듯 상쾌한 것이다. 제 4행은 이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진술했다 하겠다. 정선이 피서지로 으뜸임을 전단은 노래하고 있다.

朱陳은 정선의 異名이며 무릉은 정선의 또 다른 이름 桃源의 환유다.<sup>60)</sup> 하고 보면 주진과 도원은 정선이란 고을명의 이칭들로서 겹으로는 같은 어휘의 반복이 초래할 단조로움, 혹은 식상함을 회피하려는 기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주진촌이나 무릉은 숙지되듯 동양의 낙원들

57) <山川·風穴>. 鄭樞詩 水穴風巖誰造汝 最憐當暑有餘清. 『신증승람』권 46, 九~十면.

58) <山川·龍巖淵>. 在郡西十六里 大陰江下流. 앞 책, 十면.

59) 강물이 흐르다 거대한 바위에 부딪치는 곳에는 의례 깊이를 모를 소가 생성되고 거기에는 미구에 승천할 이무기가 살거나 아니면 과거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도처에서 발견되므로 저런 이명을 낳기에 충분하다.

60) <郡名>. 仍買 三鳳 朱陳 桃源 沈鳳. 『신증승람』권 46, 九면.

이다. 주씨와 진씨 두 씨족만 살았기에 주친촌이라 불린 이 고을은 분명 행정구역상의 하나이나 관이 지배하는지 모를 정도로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누린다. 두 가문은 통혼하므로 원근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친인척이요 그래서 老幼 구분 없이 黃鷄白酒로 화락한다. 대부분은 현손을 볼 정도로 장수하며 죽으면 마을 부근에 안장해 이승과 저승이 공존한다.<sup>61)</sup> 한편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 도망친 백성들이 건설한 마을에서 외부와 단절될 상태로 평화롭게 사는 무릉은 동양인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별천지다. 그래서 제5~6행에서는 정선에서 터 닦아 대물림하는 가문들과 고래의 무릉이라 칭찬 받을 만한 이곳의 풍물들이 장구하게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모습을 영탄했다 할 만하다.

범례적인 민속과 수려한 풍물들을 기리는 일방 그것들의 영원한 계승을 찬양하는 제4~6행은 얼핏보면 앞부분과 화제가 달라져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피서지로 정선을 자랑할 만하다고 강조했던 면과는 시상이 지나치게 비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9연의 종결처이면서 전편을 아우르는 곳임을 염두에 둔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것은 일단 전단의 주지였던 ‘더위(暑)’를 은유로 해석할 것을 전제한다. 더위는 감각적이면서도 내면적인 것과 상관성을 짓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원의 복속국가이기에 당해야 할 수모나 강요되는 풍속과 관습, 그래서 외면되고 민멸되는 고유문화자산들, 철학도 이념도 없이 저들에 부용하는 宦婦와 그 일족들 등등, 당대 사회적 지향을 성찰하는 양심적 지성인들에게는 현실 전체가 ‘열나고’, ‘열받게’ 했다.

61) <朱陳村>. 徐州古豐縣 有村曰朱陳 去縣百餘里 桑麻青氛氳 機梭聲札札 牛驢走紘紼 女汲澗中水 男採山上薪 縣遠官事少 山深人俗淳 有財不行商 有丁不入軍 家家守村業 頭白不出門 生爲村之民 死爲村之塵 田中老與幼 相見何欣欣 一村有兩姓 世世爲婚姻 (其村有朱陳二姓而已) 親疎居有族 少長游有羣 黃鷄與白酒 歡會不隔旬 生者不遠別 嫁娶先近隣 死者不遠葬 墳墓多遙村 其安生與死 不苦形與神 所以多壽考 往往見玄孫 我生禮儀鄉(이하 략). 欽定四庫全書, 『白香山詩集』권 10.

그러나 정선은 타 지역에 비길 수 없을 만큼, 마치 중국의 주진촌이나 무릉처럼 전래의 미풍양속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외세의 조류를 거부하고 있었다. 화자 속을 꿰이게 했던 일들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평소 거슬리고 짓눌렀던 제도 혹은 관행에서 자유스러운 곳이다. 이렇듯 이곳에서는 심신으로 상쾌함을 느끼므로 그 강도는 배가된다. 그래서 화자는 본 고장의 유품과 풍물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원한다. 원 제국이 잔멸하고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회복할 때 그 근원이며 진양지로 정선이 중심적 역할을 하리라는 예견에서다. 병마사도 그 점을 투시하라는 권유가 암묵적으로 용해되었음은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 3. 텍스트의 구조

『근제집』권 2 소재 <관동별곡>을 필사 형태와 ‘-○○景 幾何如’로 분절하면 전체는 9개 단락으로 세분되는데 그 낱날을 ‘연(stanza)’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전통적 술어 ‘章’을 습용해도 괜찮겠지만 저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 究明이 본고의 궁극적 사명이란 점에서 비평적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관동별곡>은 9연으로 짜여졌다.

경기체가의 기본형<sup>62)</sup>(율격모형 metric pattern)에 비겨보면 <관동별

62) 경기체가의 율격 모형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왕성했다. 그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탐색은 과제로 미뤄둔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김문기의 구안을 존중한다. 그가 제시한 기본 틀에 음수율을 부가해 도식화하면 이렇다.

제 1 행	<u>3</u>	<u>3</u>	<u>4</u>	(3 음보)
제 2 행	<u>3</u>	<u>3</u>	<u>4</u>	(3 음보)
제 3 행	<u>3</u>	<u>3</u>	<u>4</u>	(3 음보)
제 4 행	<u>위</u>	<u>(…景)</u>	<u>(괴엇더)</u>	<u>(흐니잇고)</u> (4 음보)
제 5 행	<u>4</u>	<u>4</u>	<u>4</u>	<u>4</u> (4 음보)
제 6 행	<u>위</u>	<u>(…景)</u>	<u>(괴엇더)</u>	<u>(흐니잇고)</u> (4 음보).

곡>은 그것을 실천한 흔적이 역력하다. 제3·4연의 제 4행은 감탄문과 의문문이 상투적 표현을 대신했고 제5·6·8연에서는 제6행이 정격에서 벗어났다. 이탈의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하다. 정형화로 진전하는 도중의 未整齊가 그 하나요 이미 완성된 틀이지만 순간적인 정서와의 조응을 위해 의도적인 변조로 파악함이 나머지다. 이미 논의되었듯 경기체가 양식에 익숙한 작가가 그것의 고집에서 파생되는 단조로움과 최면성을 통찰하고 시적 진실 내지 울림을 강화시키고자 파형을 시도했다 보면 공정하겠다. 따라서 <관동별곡>은 정형률의 지배를 받는 정형시로 규정된다.

제5행이 <죽계별곡>과 더불어 4음절 기저 2음보라는 면이 주목된다. 劔鬪氏의 실수라거나 실현태는 4음보였으리라 추정함은 안이하다. 원상이 그랬으리라 봄이 합리ро울 듯하다.

의미나 어조, 혹은 태도라는 관점에서 각 연은 제4행이 분기선이다. 제4행을 경계로 앞 뒤 단락이 분할되며 앞이 길다. 그 동안 이런 현상을 전대절 후소절이라 불렀지만 이는 평면적 관찰이라 불만스럽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 제5행은 제1~3행의 연장이 아니다.<sup>63)</sup> 그들과 이질적인 세계 혹은 시각으로 선택하되 전후 음보 사이에는 인과, 수식과 피수식, 선후 등으로 긴장성이 유지된다. 제6행은 제5행의 결과 혹은 그에 대한 판단을 탄상적으로 표출한다. 결과적으로 한 연은 크기와 차원을 달리하는 유사 구조의 중첩으로 조직된다.<sup>64)</sup>

---

金文基, 『景幾體歌의 綜合的 考察』, 權寧徹·金文基외, 『韓國詩歌研究』(螢雪出版社, 1981), 124~5면

63) 최상은이 <한림별곡>의 제1~4행과 나머지 사이에서 이질성을 발견한 점은 탁월했다. 그러나 <관동별곡>에 이르러 뒤 2행을 앞 4행의 '반복'으로 판단한 점에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崔相殷, 『경기체가의 풍류적 성격과 사대부 문학의 서정성』, 『嶺南語文學』16(1989), 332~7면.

64) 전후 단락에서 취급된 세계 혹은 층위의 차이를 도표화해 본다.

이처럼 연 내부에서 커를 이루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동일은 世界相의 나열을 개별적인 것이라 하고 ‘-景’을 포괄적이라 전제한 뒤 감격의 확장과 완결을 위해 葉의 2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65)</sup> 葉의 소용을 해명할 수 있는 한 면은 될지언정 전부일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관동별곡>의 경우 제5행은 반복이 아니어서 ‘감정의 고조’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후단의 존재가 밝혀져야 할 듯하다.

그도 인용한 바 있는 三峯 鄭道傳(1342~98)의 한마디- 이 때문에 우리 처사점물하는 이들은 역시 그 도를 다해야 하며 혹 차이나 오류도 용납될 수 없다<sup>66)</sup>-가 여기서도 적의로울 듯하다. 차이나 오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그 道란 무엇일까? 아마도 완벽하게 처사점물함을 이

연 \ 단락	전대단	후소단
1연	현실세계의 묘사	지향세계의 제시
2연(안변)	승경의 조망	감흥을 돋구는 분위기로 승경 역방
3연(통천)	기암괴석들의 답사와 탄상	훌륭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재래하기를 소원함
4연(고성)	기관이적과 고은 모습에 융합	육자 단서에 탄복
5연(간성)	두 담수지의 비경과 뱃놀이	순채국과 농어회의 우수한 맛
6연(양양)	봉황과 난새를 타고온 신선들의 풍류처	네 철 유락할 수 있는 곳
7연(강릉)	낮에 유상하는 예의와 풍류 그리고 미관	새벽에 구경하는 일출 장관
8연(삼척, 울진, 평해)	청가완무로 좋은 손을 맞이하고 보냄	망사정 가에서 갈매기와 벗함
9연(정선)	천연의 피서지와 피서하는 광경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평화로운 이상향

65) 조동일,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 인문·사회과학 15(학술원, 1976), 238면. 한창훈은 ‘객관적 정경과 주관적 감흥의 반복구조’로 한 연의 조직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도 외형적 관찰에 머물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듯하다. 한창훈, 앞 논문, 203면.

66) <佛氏昧於道器之辨>. 是以 凡吾所以處事接物者 亦當各盡其道 而不可或有所差謬也. 『三峯集』권 9, 『한국문집총간』5, 451면.

를 것이다. 실질과 어긋나거나 판단의 착오로 사물의 처리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물의 핵심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본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입체적 관찰도 하나의 답일 수 있다. 흔히들 사물의 단면이 전체를 대변한다하여 그것의 발견과 탐색에 몰두하지만 경제적이긴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시각과 차원을 바꾸어 가며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상 도저히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도 드물 터이다. 사물 내지 객관세계의 철저한 앎을 통해 세상살이의 원리와 규범을 정립하려던 신흥 사대부의 사유와 신념이 문학작품의 다면 구조 또는 사물의 입체적 노래로 외현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들의 조직 체계는 병마사의 순행 여정과 일치한다. 첫 연이 序詞로 구실함은 관동, 삭방, 순찰 과 같은 어휘들로 간파된다. 화자가 순찰해야 될 지역들을 개괄적으로 언술했다는 의미에서 서사 내지 서곡임이 자명해진다. 제2~9연에서 노래된 각 고을들을 순서대로 짚어 가면 안변→통천→고성→간성→양양→강릉→삼척·울진·평해→정선으로 나타난다. 왜 안변에서 순방이 시작되었느냐는 의문은 병마영의 관아가 그곳에 있었던 까닭으로 해소된다. 안변에서 동해를 끼고 남으로 정선까지의 지역을 통치했던 병마사는 상시에는 안변에서 집무했다. 백문보는 순무사로 차임되었기에 옛 병마사의 순찰 길을 추종했다 단언하기는 주저된다. 그러나 제1연에서 주동인물을 병마사로 설정한 이상 과거 그의 왕래 경로를 재현시킴이 작품 질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도정은 조작일 개연성이 높다.

근재가 <관동별곡>을 9연에 한정시킨 연유를 따로 언급한 적이 없다. 때문에 여러 추측이 가능해진다. 백문보의 경상도 안검을 계기로 근재는 한편의 리과 <경상도팔영>을 지었는데 둘을 합하면 9수가 된다. 인은 서사격으로 <관동팔경>의 제1연에 해당되고 강원도 8고을을 노래한 제2~9연은 그대로 <경상도팔영>에 대응된다. 따라서 둘은 상관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리+<경상도팔영>=9수가 <관동별곡>의 9

연에 작용했으리라 본다. 제9연의 둘째 단락이 해당 연의 마무리이면서 작품 전체의 그것임은 이미 앞에서 살폈다.

### Ⅲ. 텍스트의 시가사적 좌표

#### 1. 경기체가 장르의 최초 완정품

<한림별곡>이 자기 장르의 범례로 인식된 사실은 두 가지로 입증된다. 첫째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의 한 인물로 추앙받는 退溪 李滉(1501~70)이 ‘<한림별곡> 부류들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翰林別曲之流 出於文人之口)’라 하여 경기체가 장르의 전형으로 <한림별곡>을 예시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한림별곡>에 후속되는 여러 작품들이 저 텍스트를 모형으로 여겨 많은 부분을 차용 혹은 도습했다는 연구<sup>67)</sup>가 뒷받침해준다. 경기체가 갈래에서 <한림별곡>이 향유층에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그만큼 향유층의 성정에 공감력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점은 경기체가라는 장르와 한국 시가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월하며 그래서 시가사적 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체가 장르의 전개사, 특히 그 장르의 성장기를 조명할 때도 <한림별곡>에 저런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는 반문해 볼 일이다. 조선 전기 집권 관료층이 <한림별곡>을 왕성하게 노래부른 데서 저런 지위로 상승할 수 있었지 그 이전, 즉 생성된 이래 여말까지 문헌에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런 사실은 경기체가의 효시 작품이기에 <한림별곡>이 시가사에서 귀중하다는 인식에 반성을 요구한다. 불완전

67) 허남춘, 『<한림별곡>과 조선조 경기체가의 향방』, 『한국시가연구』17(한국시가학회, 2005, 2), 222~30면.

하나마 <한림별곡>의 전모는 1451년(문종 1)에 완성된 『고려사·악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난다.<sup>68)</sup>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들을 정리하면 ① ‘고종 때 한림 제유들이 지었다(高宗時翰林諸儒作)’ 라는 『고려사·악지』의 기술을 신뢰할 것인가 여부, ② 8장 전부가 일시에 창작된 것인가 여부, ③ 작품 구조가 발생 때부터 지금 대면하는 그대로일까 여부, 로 집약할 수 있다. ①에 대해서는 논쟁이 치열하다. 크게 고종대와 그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 한해서도 다시 고종대(1214~59)설<sup>69)</sup>, 고종 2·3년(1215~6)설<sup>70)</sup>, 고종 7~17년(1220~30)설<sup>71)</sup>, 고종 14년(1227)설<sup>72)</sup> 등으로 세분된다. 후자에서는 막연히 고종 후세에 창작되었다는 설<sup>73)</sup>과 13세기 후반~14세기 중·말엽 사이<sup>74)</sup>로 추정하기도 했다. ②와 ③에 대해서는 작품 내적 증거를 내세워 점차적으로 누적·세련되어 현전 모습에 도달했다는 견해들<sup>75)</sup>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림별곡>을 두고 제기되는 이상의 다양한 이견들은 결국 그것의

- 68) 우리는 중·명종 연간에 편찬이 추측되는 『樂章歌詞』에 와서야 온전한 형상을 대면할 수 있다.
- 69) 趙潤濟, 『朝鮮詩歌史綱』(乙酉文化社, 1560), 103면 등 1950년대 이전에 나온 저술들에는 거의 이 설을 택하고 있다.
- 70) 張德順,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0), 122~3면.  
金東旭, 『翰林別曲의 成立年代』, 『延大八十周年紀念論文集』(연대, 1965).
- 71) 李明九, 『高麗歌謠의 研究』(新雅社, 1974), 111~2면.  
金善祺, 『<翰林別曲>의 作者와 創作年代에 關한 考察』, 『語文研究』12(語文研究會, 1983), 309~13면.
- 72) 呂運弼, 『翰林別曲의 創作時期 再論』, 『睡蓮語文論集』23, 385면.
- 73) 成鎬周, 『韓國詩歌研究』(第一文化社, 1993), 241~4면.
- 74) 成昊慶, 『翰林別曲 創作時期 論辨』,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嶺大출판부, 1997), 136면.
- 75) 琴基昌, 『韓國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82), 249면.  
呂運弼, 『<翰林別曲>의 創作背景 研究』, 『睡蓮語文論集』19, 40~3면.

사적 평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가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학계가 공감하는 사실 혹은 견해를 수렴해야 한다. 다양한 주장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혹은 절충한 논리를 근거로 씌어진 시가사라야 권위가 선다. 때문에 ‘후세 경기체가의 모범이 되어 다수 그의 모작이 있는 바와 같이…’<sup>76)</sup> 등처럼 지금까지 학계가 <한림별곡>에게 부여한 시가사적 비중은, 특히 장르 발생기의 예증 작품으로 인용한 연구는 준절 한 내성이 따라야 할 일이다.

후세에 제작된 여러 작품들이 불완전한 <한림별곡>을 모방했다 보기는 어렵다. 처음 출현했을 때의, 혹은 다듬어지는 과정 중의 그것을 借作했다기보다는 정제된 후에 그런 행위가 수행되었으리라는 믿음이 공평하다. 한다면 관심의 표적은 그것의 성형 완료기로 이동한다. 그 하나의 단서가 <한림별곡> 제2장에서 포착된다. 제3행은 당시 과시 과목을 열거했는데 四書가 없다.<sup>77)</sup> 사서는 성리학의 기본도서인 바 그것의 유무는 성리학의 보급·침윤 정도뿐만 아니라 제2장의 제작시기 추정에도 기여함이 크다. 충목왕 즉위년(1344)에야 사서가 과시과목으로 지정되었다.<sup>78)</sup> 저 시기 이전에 제2장이 성안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제2장의 작품 내적 정보가 <한림별곡> 전 8장의 완성기를 보증해 준다는 사고는 소박하다. 제1~3장과 그 이후의 작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는 점에서 창작 시기가 달랐으리라는 진단이 가능해진다. 따라

76)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앞 책, 104면.

77) <한림별곡> 제작 시기 추정에 제1~2장이 크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비중이나 가치 면에서 결코 등가적이지는 않다. 작중화자인 ‘날’이 어느 시대 누구라고 논증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1장의 증거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제2장은 중국 서적의 수입 시기나 독서 경향이라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의 추적에 의존할 것이므로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한림별곡>의 생성시기 탐구가 제2장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78) <選舉> 一. 忠穆王即位之年八月改定 初場試六經義四書疑 中場古賦 終場策問. 『高麗史』권 73, 志卷第 27.

서 <한림별곡>의 정제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할 것이다.<sup>79)</sup>

근재의 <관동별곡>은 그 작가, 창작시기와 방식 등에서 <한림별곡>과 판이하다. 후자가 구비문학적 세례를 듬뿍 받았는데 반해 전자는 상당기간 필사 내지 구비 전승의 시기를 거쳤지만 개인작이라 불러 무난할 만큼 그 영향은 미미하다. 환언하면 근재의 작품은 창작시기가 명백한 개인작이라 일러도 시비결 여지가 없는 텍스트다. 특히 <한림별곡>의 경우 그 1~3연이 1344년 이전에 골격 정도 구비했다 추정되는데 비해 <관동별곡>은 한 해 뒤인 1345년(충목왕 1)에 완전한 모습으로 출현했다. 불완전한 상태인 <한림별곡>과 완성된 <관동별곡> 두 작품 중 어느 쪽이 향유층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까는 자명해진다.<sup>80)</sup> 지금까지 경기체가 성장기에 <한림별곡>에 부여했던 비중 내지 위상을 오히려 <관동별곡>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하여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는지 점검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는 안축이 1345년에 강원도 존무사로 발행하는 白文寶을 위해 <관동별곡>을 지었다는 점이다. 종래처럼 안축 본인이 강원도 존무사 재임기간 중 창작했다는 설을 취하더라도 개인이 일시에 창작한 개인작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근재가 창작에 임할 즈음에 <한림별곡>은 앞에서 살폈듯 기껏 제3장

79) 그러나 태종이 1413년(태종 13)에 예문관 관료들에게 주육을 하사하며 ‘<한림별곡>을 부르며 즐겨라.’ 했을 적에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다. 賜酒肉于禮文館 館官獻松子 上賜酒肉 仍命曰 汝等昌翰林別曲以歡. 태종실록 권 26, 태종 13년 癸巳 7월 乙未.

80) 성현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통해 <관동별곡>이 사대부들 사이에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處 光山君金若恒之子 金判官處 以其父死於異國 傷痛得狂疾 昏懵不省事 雖小兒愚婦 百計欺之 皆信從不疑 常畏家中一奴 隨其指揮 而俯仰不得 有所作爲 奴若叱之 則畏縮不能動 判官晝則多睡 小醒 醒則自昌關東別曲 拂袖而舞歌 舞畢則大聲而哭 夜則長吟詩句 踽踽獨行. 『慵齋叢話』권 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 I, 590면.

까지, 그것도 지극히 모호한 형태였다. 반대로 <관동별곡>은 이미 완성태에 도달했다. 이런 현상은 근재 이전 혹은 당대에 경기체가 갈래가 파생해서 그 시형을 다듬어 가던 중 근재가 마무리되었다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충숙왕이 젊은 그를 成均 樂正으로 獵等 중용한 것<sup>81)</sup>은 악률에 대한 재능과 식견을 인정했기 때문이요 그가 경기체가 시형 완성에 일정부분 참여했으리라는 근거가 되어준다. 둘째로는 근재가 지은 <관동별곡> 및 <죽계별곡>은 제5행이 2음보인데 반해 <한림별곡>은 해당 부분이 4음보다. 4음보는 2음보의 중첩이므로 ‘再唱’이란 표지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연행시는 관습적으로 4음보로 연창되었으리라 짐작하여 원형 역시 4음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재량이 지나치다고 본다. 초창기에는 2음보였는데 후대에 이르러 정서를 강조 내지 격동시킬 필요성을 느껴 반복했다면 2음보가 원형이다. 덧붙여 <관동별곡>의 제9장은 정격인데 반해 <한림별곡>은 끝장의 제 2행 이하가 직전까지 고수해온 사물의 나열이란 예기를 배반하고 서술과 권유의 어조로 파탈을 보인 점 역시 주목된다. 두 가지 사실은 <관동별곡>이 원상이요 <한림별곡>이 흥취를 둔근 후대적 변모라는 인식을 낳기에 족하다. 셋째로는 제4·6행에 삽입된 관용구적 표현의 개변이 주목된다. 두 텍스트 해당 부분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면<sup>82)</sup>을 살펴보면 두 가지 면에서 상당한 변천을 보이는데 그 의미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첫째, 감탄사 ‘위’의 표기문제다. 향가 이래로 구어체의 감탄사는

81) <墓地銘>. 甲子會試 京師廷對 第三甲七人 初授盖州判官 時忠肅王被留鞞 轂四年矣 公謂同志曰 主憂臣辱 主辱臣死 吾曹之學如此 乃上書訟王無他 王甚嘉之 超拜成均樂正. 『謹齋集』권 4, 앞 책, 467면.

82) 각 작품의 첫 작품 해당 부분만을 적시한다. <상대별곡>은 흐름의 추이를 파악코자 첨부했다.

<관동별곡>	<한림별곡>	<霜臺別曲>
제1장 爲 巡察景 幾如何	제1장 偉 試場景 何如	제1장  위 萬古淸風景 其 엇더히니잇고
爲 王化中興景 幾如何	俚語 (위 날조차 멋부니잇고)	위 날조차 멋부니잇고

‘아!’, ‘오!’ 등으로 출현하되 ‘위’는 고려가요에서 비로소 대두한다. 고려 시대에 비로소 그 가치가 발견되었음을 시사한다. 국어발음으로는 ‘위’ 임이 분명한데 세 작품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權近이 <상대별곡>을 제작할 적에는 爲와 偉 둘 중 어느 하나일 터이요 한글이 창제된 후 우리가 대면하는 모양으로 전환시켰다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막연하나 둘 중 어느 것을 부려야 옳은지가 쟁점화되었던 상황을 노출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논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원형을 제시하겠다는 의도가 개입했으리라 본다. 아무튼 두 한자 표기는 한글 사용 이전의 구차스런 방식임을 알게 된다. 문제는 爲와 偉 중 어느 것이 먼저 쓰였겠느냐 에 있다. 어느 것이나 音借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偉에는 의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감탄사의 자질을 부상시키겠다는 의미에서 偉를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전래하던 관습의 개신으로 해석되며 시대의 선후를 가리는 징표가 되어준다.

둘째, 제4·6행은 ‘爲 …景 幾何如’가 준칙적 표현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사적 의문형이지만 찬양과 과시가 기본 역할이므로 감탄문과 호환될 숙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법도와 규격을 존중할 뿐더러 樂而不淫 哀而不悲라는 성리학적 심미의식이 심화될수록 규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울 것은 상식이다. 세 작품을 이런 관점으로 살피면 그들의 선후가 드러난다. 감탄문의 수량이 관동별곡(6회)→한림별곡(2회)→상대별곡(○회)의 순서로 감소함이 포착된다. <관동별곡> 단계에서는 투식적 표현과 감격적 영탄 중 어느 것이나 문맥적 상황에 따라 허용되었으나 후대에 이를수록 성리학적 기풍이 삼엄해짐에 따라 전자 쪽으로 경사되었다 볼 것이다. 투식어 사용 실태 역시 두 작품의 선후를 입증한다.

완성된 작품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던 <관동별곡>이 미완 상태였던 <한림별곡>에 비해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근재의 압력적 재능이 형성기의 경기체가 장르를 수용해 완성시켰으며 그 시험작이 <관동별곡>이고 보면 그 시가사적 위상은 명백해진다. 경기체가

장르의 조종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경기체가 연구는 여기서 시발해야 하고 연구의 결과 또한 이것으로 재단되어야 한다. <한림별곡>과 대등한 아니 그 이상으로 주목되어야 할 일이다.

<관동별곡>이 동일 장르의 후속 작품들에 남긴 또 하나의 족적은 共樂의 추구라는 점이다.<sup>83)</sup> 어찌 보면 근재는 개인적 표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 텍스트를 생산했다 하겠지만 지정된 고을의 주민들을 대변했다는 면에서 집단적 표현욕구에 무게를 실었다 함이 타당하다.<sup>84)</sup> 넓게는 강원도의, 좁게는 안변, 흡곡, 통천 등 각 고을의 공동 정서를 노래했던 것이다. 집단적인 가요로서의 경기체가 속성 고정은 왕조 교체에 요긴했던 악장의 제작에 크게 부응했다. 악장으로 불린 대부분의 경기체가가 공락을 미감의 정수로 선정한 것도 그 근원은 <관동별곡>에 닿는다. 불교세계를 노래한 경기체가도 공락 추구에 열중하여 대중의 정서에 호소한다. 경기체가가 독락 쪽으로 전환하면서 형식이 붕괴되고 곧이어 소멸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향수 주체가 대중이요 집단이었음을 방증한다. 공락의 추구가 경기체가의 중요한 속성이며 근재의 <관동별곡>이 그 선구였다는 점에서 시가사적 위치가 구명된다.

## 2. 타 작품 및 갈래에의 반향

<관동별곡>이 이어지는 작품들의 전범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83) 경기체가가 존재 기반이 공락인 점은 최재남의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한국시가연구(한국시가학회, 1997), 19~23면.

84) <관동별곡>의 지배적 정서를 근재 개인의 것으로 김상철은 전제, 논증한 적이 있다. 공동작 아닌 개인작이란 점에서 일면 공감미가 간다. 그러나 창작계기나 향유배경 등을 고려하면 공락이란 성격이 현저해질 것이다. 金相喆, 「安軸의 <關東別曲>에 나타난 情緒와 그 表出方式에 대하여」, 앞 논문, 120~1면.

창작력을 추동했으리라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동일 장르의 후대 작품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으며 갈래체계를 이루었던 공존장르들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면 그 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동일 장르의 후속 작품들에 넘겨준 자질들을 우선 검토해보자.

쉽게 띄는 연관성은 발상법이다. 머릿 연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관동별곡>의 첫 연을 패로디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저 텍스트의 제1연은 제4행을 초점으로 삼아 점차 좁혀지는, 이른바 점강법의 수사법을 쓰고 있다. 조선 최초 작품으로 알려진 <霜臺別曲>의 해당 연을 살펴보자.

華山南 漢水北 千年勝地  
 廣通橋 雲從街 건나 드러  
 落落長松 亭亭古栢 秋霜烏府  
 위 萬古淸風入景 기 엇더흐니잇고  
 (葉) 英雄豪傑 一時人才 英雄豪傑 一時人才  
 위 날조차 몇분니잇고.

제1행은 오부(사헌부)가 위치한 지리적 배경과 그 찬미다. 제2행은 오부와 가까운 변화가로 시선이 옮겨지고 제3행은 바로 오부를 에워싼 송백의 우람한 수풀을 살핀 뒤 목적 장소에 이른다. 오부를 향해 시선이 죄어움이 확인된다. 원경부터 순차적으로 서술하여 관찰 대상에 직접해 가는 수법은 <관동별곡>에서 개척된 뒤 범례로 후대 작품에 줄곧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현상은 <九月山別曲>이나 <花田別曲>처럼 작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에서만뿐만 아니라 <歌聖德>과 <五倫歌>와 같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덕목들을 노래한 경우도 예외는 없다. 佛家系의 경기체가도 역시 동궐대. 경기체가 작가들이 <관동별곡> 제1연의 구성원리를 요해했다는 의미요 그만큼 저것이 호소력이 큰 노래였음을 증언한다. 같은 장르의 후속 작품에 <관동별곡>이

물려준 자산은 이것만 가지고서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 장르로서 특정 고장의 승경과 풍물, 그리고 역사를 주제-내용으로 채택한 작품들이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작자와 창작시기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賞春曲>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것들이 명백한 俛仰亭 宋純(1493~582)의 <俛仰亭歌>에 이르면 작품의 배경이 된 潭陽 企村의 풍광이 생동감 넘치게 묘사된다.

즌 서리 빠바진 후의 山빛치 금슈로다  
 黃雲은 또 엇지 萬頃이 편 거지요  
 漁笛도 흥을 계워 들롤 쓰라 브니는다  
 초목 다 진 후의 강산이 툇물커놀  
 造物리 현스흐야 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眼底에 버러세라  
 乾坤도 가음열샤 간 대마다 景이로다.<sup>85)</sup>

가을철의 단풍 든 산과 벼가 익은 들판을 각각 ‘錦繡’와 ‘黃雲’에 비기다가 하면 겨울의 눈 덮인 산하를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라면 자랑과 칭찬이 질펀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미감이 충만한 고장이다. ‘산수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설파했고 구경하며 감상하는 즐거움을 펼쳤으니 가슴속에는 저절로 호연한 정취가 생긴다.’<sup>86)</sup>라는 흥만종의 평가에 공감이 간다.

산수의 수려함과 그곳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진술한 가사는 <면양정가> 이후 속출한다. 송강의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은 너무나 친숙한 작품들이라 거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李倪의 <百祥樓歌>, 朴仁老의 <立巖別曲> 등 이른바 ‘風物紋景歌辭’라는 하위장르를 설정할

85)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成文閣, 1982), 29면.

86) 俛仰亭 宋二相純所製 說盡山水之勝 鋪張遊賞之樂 胸中自有浩然之氣. 洪萬宗, 『句五志』.

정도로 창작과 향유가 성행했다. 이런 유형의 작품은 가사 장르가 대두한 시기부터 쇠퇴하기까지 열의의 고저는 다를지언정 연면했다.<sup>87)</sup> 문학관습의 하나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적 자아 혹은 시적 청자가 寓居하는 고장을 찬미하는 문학 관습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문학사를 조감할 때 그것은 안축의 <관동별곡>으로 소급할 수 있을 듯하다. 고장의 승경이나 풍물을 미화하는 가사에 한정시키는 한 입수된 자료에 국한한다면 <면앙정가>가 효시다. 그러나 <면앙정가>가 형상화한 작품 경향이 송순의 문학적 창의성의 발로라 보기는 어렵다. 당시에 유행하던 경기체가 장르에 동질적인 세계가 이미 보이기 때문이다. 한다면 송순은 경기체가 장르의 한 세계를 가사 장르에 이식, 발아시켰다는 공로로 평가될지언정 그 이상은 부당하다. 풍물서경가사는 <면앙정가>를 넘어 상호 경쟁·보완 관계에 있던 경기체가 장르에서 그 기원을 탐색할 일이며 그 상한선은 결국 <관동별곡>에 이르게 된다.

기타 시조나 잡가 장르에서 나타나는 고장 혹은 거처의 찬탄 역시 작품례로 입증은 줄이지만 그 기원은 <관동별곡>으로 소급되리라 여겨진다.

#### IV. 결론

강원도 존무사로 임명된 백문보에게 그곳의 비경, 명물, 고적 등을 미리 알리고 그에 부수될 감흥을 예감해 보는 시각으로 근제의 <관동별곡>을 평석하는 한편 그랬을 경우 한국 시가사에서 저것은 어떤 위상에 놓일 것인가에 이 글은 주력했다. 서사적인 제1연을 제외하면 매

87) 風物敘景歌辭라는 하위 장르의 설정과 전개상에 대해서는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국학자료원, 1994), 73면 이후 참조.

언이 특정 고장의 자랑거리를 나열하고 찬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에 그 결과를 여기에 옮기는 일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중복되므로 약하고자 한다. 경기체가 장르의 단초를 열었다는 견지에서 학계는 <한림별곡>에 우월한 위상을 수여했지만 상당기간 구전을 통해 첨가되고 세련되는 과정을 거쳐 현전의 모습에 도달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라 보기는 무리다. 대신 <관동별곡>은 근재란 한 작가가 특정 시기에 창작한 개인작이면서 완성된 형상을 보이므로 후래 작품들에 미친 영향은 전자를 능가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존했던 타 갈래들에서도 그 자취는 역력하다. <한림별곡>이 차지했던 좌표와 명성의 상당 부분은 <관동별곡>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근재가 강원도 존무사 재임기간에 어렵사리 발신한 자기 계층의 득의에 찬 기상을 고양된 목소리로 노래했다는 입장에서 <관동별곡>을 평석한 선행 연구들이 상당한 곤경과 장애 앞에서 방황하고 고뇌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연구들이 들인 공력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근원과 배경도 이제는 밝혀진다. 이 글이 <관동별곡> 읽기에 방해했던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는 매개로 역할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경물(scenary sight), 고적(historic remain), 순력(inspection tour), 해석 준거(criterion of interpretation), 층위(strata), 율격 모형(metric pattern), 최초의 완정품(absolutely perfect of the foremost), 반향(echo)

## 참고문헌

- 『高麗名賢集』 성대대동문화연구소 영인(1986)  
『고려사』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8)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발행(1978)  
 『三國遺事』  
 『한국문집총간』5  
 태종실록  
 『史記』  
 『晉書』  
 『漢語大詞典』  
 欽定四庫全書, 『白香山詩集』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3(탐구당, 1993)  
 琴基昌, 『韓國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82)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국학자료원, 1994)  
 成鎬周, 『韓國詩歌研究』(第一文化社, 1993)  
 양주동, 『麗謠箋注』(을유문화사, 1985)  
 李明九, 『高麗歌謠의 研究』(新雅社, 1974)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成文閣, 1982)  
 張德順,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0)  
 趙潤濟, 『朝鮮詩歌史綱』(乙酉文化社, 1560)  
 다이앤 에키먼 지음,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관』(작가정신, 2004)  
 嚴北溟·嚴捷譯註, 『列子譯註』(上海古籍出版社, 1986)  
 劉向지음, 김장환 옮김, 『列仙傳』(예문서원, 1996)  
 김동욱, 「<關東別曲>·<竹溪別曲>과 安軸의 歌文學」, 『泮橋語文研究』  
 창간호(泮橋語文研究會, 1988)  
 金東旭, 「翰林別曲의 成立年代」, 『延大八十周年紀念論文集』(연대, 1965)  
 金文基, 「景幾體歌의 綜合的 考察」, 權寧徹·金文基의, 『韓國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81)  
 金相喆, 「안축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정서와 그 표출방식에 대하여」,  
 『한국학연구』10(1999)

- 金善祺, 「<翰林別曲>의 作者와 創作年代에 관한 考察」, 『語文研究』12  
(語文研究會, 1983)
- 金倉圭, 「謹齋 關東別曲 評釋考」, 『논문집』16(대구교대, 1980)
- 成昊慶, 「翰林別曲 創作時期 論辨」,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嶺  
大출판부, 1997)
- 呂運弼, 「<翰林別曲>의 創作背景 研究」, 『睡蓮語文論集』19
- 呂運弼, 「翰林別曲의 創作時期 再論」, 『睡蓮語文論集』23
- 졸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韓國詩歌研究』19  
(2005, 11)
- 崔相殷, 「경기체가의 풍류적 성격과 사대부 문학의 서정성」, 『嶺南語文  
學』16(1989)
- 최용수, 「안축(安軸)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23호(1998, 12)
- 최재남,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한국시가연구(한국시가학회,  
1997)
- 한창훈, 「謹齋 安軸(1282~1348)論」, 『우리말 연구』14(1995)
- 허남춘, 「<한림별곡>과 조선조 경기체가의 향방」, 『한국시가연구』17  
(한국시가학회, 2005, 2)

## &lt;Abstract&gt;

## The Ruminaton of &lt;Khwandongbaelgok&gt; by An, Chook

Jeong, Moo-Ryoung

This thesis devotes to inspect two topic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One is to interpret and criticize the <Khwandongbaelgok> by An, Chook in an angle with which for the purpose of knowing beforehand Kangwondo's mysterious scenery, speciality, and historic remains to Bae, moon Bo who was appointed to the Jonmoosa of Kangwondo and to hunch him the fun subsequently to be followed. The other is to estimate the position of the text in the history of korean song and poetry. Except the 1th stanza the rest are developed by the way of arranging and praising the given county's pride and joy so that we abbreviate the results of the first topic in respect to the view that to transfer here is meaningless duplication as well as troublesome. Till now learning circle endowed the <Hanlimbaelgok> superior position seen from the standpoint of starting the genre of Kaenggichaega, we judge the idea is mistaken because of disregarding the fact that the presenting text has passed through added and baptized process of handing down orally long time. The <Khwandongbaelgok> is a completed creation made by a writer at one time so that We think it is just to conclude the latter has a good effect to the later comer in the same genre than the previous. In addition the latter's traces are clear in another coexistent genres. Then it is natural to consider that some of the position and fame of the <Hanlimbaelgok> are made over to the <Khwandongbaelgok>.

정무룡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51)620-4211 (051)514-0284

e-mail: mrj@star.ks.ac.kr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